

# 우리나라 첫 연구용원자로 보존·기념관화 필요성

임 용 규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미국 Argonne 국제원자력학교 졸업  
미국 Michigan대 대학원(방사선안전공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원자력공학)

원자력청 원자력연구소 보건물리실 연구관  
주미 한국대사관 초대과학관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국립과학관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원장, 원장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회장,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회장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역임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2002~)

## '제3의 불' 원자력의 발상지

1959년 당시 6.25 전란의 상처로 전 국토가 폐허화되고 과학 기술 관련 시설이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때에 국가적 원자력 시책으로 원자력연구소가 발족되고 연구소 부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용원자로(TRIGA Mark-II)가 도입·설치되었다.

1962년 3월 19일 11시 45분 '제 3의 불'인 원자력이 점화(핵반응 임계 도달)되어 단군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원자력 시대 진입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 첫 연구용원자로로는 우리나라 과학사에 신기원을 불러온 역사적 유물이며 귀중한 원자력 과학 문화재이므로 이를 보존, 기념 전시 관화하여 후세에 남겨야 한다.

## 첨단 과학 기술과 인력 양성의 모체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지속적 추진에 따라 우리나라는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다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는데 이에 우리나라 원자력 사업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용원자로인 우리 민족사의 획기적 전환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첨단 과학에 대한 대표적 상징물이다.

우리나라는 이 원자료를 이용하여 각종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여 의료, 농업, 산업 분야 등에 활용함으로써 원자력이 새로운 과학 기술로 그 유용성을 국민에게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형편인데도 많은 원자력 국비유학생을 과감히 해외에



우리나라 첫 연구용원자로 트리가마크 II

과전, 원자력 인력 양성에 힘썼다. 그 결과 이것이 모체가 되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세계 상위에 진입,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첫 연구용원자로야말로 우리나라 과학 기술 분야에서 후세에 남길 역사적 유물 중 첫째가는 과학 문화재가 아닐 수 없다.

**첫 연구용 원자로를  
대국민 교육 계몽의 장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우리나라 전력 에너지의 약 40%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고 방사선이나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 기관은 약 3,600여개 소로 의료, 생산 기술, 농·수산 분야 등에 다양하게 이용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신과 방사선에 대한 공포심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원자력 사업에 큰 장애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반핵 운동과 과장된 보도, 일반 혐오 시설에 대한 님비(NIMBY) 현상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국민이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보다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원자력 사업과 필수 관계 시설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로 국민의 공감대를 못 얻어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 손실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쓰라린 상처를 경험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된 것이 아니고 반복 계

속될 것 같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통하여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예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투자에는 원자력 관련 사업자와 전력 회사 및 에너지를 관장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22만 평의 부지 중 연구용원자로의 부지 1만여 평을 확보하여 보존이 결정된 연구용원자로 건물을 기념관으로 하여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교육과 계몽 홍보를 겸한 원자력전시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우리나라 첫 연구용원자로가 보존될 부지는 자연 녹지 지역 안에 있고 태릉 등 명소와 인접하고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여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들의 접근이 수월하고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원자력연구소 서울 부지 매각과 연구로(1,2호기) 철거 추진**

**1. 원자력연구소 서울 부지 매각**

1985년 3월 한국원자력연구소(당시 공식 명칭 ; 한국에너지연구소)는 대덕연구단지의 건설 등에 따른 정부 지원 예산 부담으로 서

<표 1> 연구로 1호기 개요

항 목	내 용
원자로 명칭	TRIGA Mark-II (TRIGA; Training, Research, Isotope production, General Atomics)
장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170-2 (착공당시;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하계리)
기공 연월일	1959. 7. 14
완공 연월일	1962. 3. 18
노형, 열 출력	수조 형(Swimming pool type) 설계 열 출력; 100 kW
용 도	인력양성 · 훈련, 연구,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항 목	내 용
임계도달 일시	1962. 3. 19. 11:45
출력 증강 일	1969. 7. 14 (100 kW → 250 kW)
가동 종료일	1995. 1. 31
폐지신고	1996. 4

<표 2> 연구로 2호기 개요

항 목	내 용
원자로 명칭	TRIGA Mark-III
장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170-2
기공 연월일	1969. 4. 12
완공 연월일	1972. 5. 10
노형, 열 출력	수조 형(Swimming pool type) 설계 열 출력; 2 MW
용 도	인력양성 · 훈련, 연구,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가동 종료	1998. 7
해체 승인	1996. 3. 25
해체 완료	2005. 12

을 부지를 매각해 대덕으로 완전 이전을 추진하던 중 한국전력공사가 동 부지를 교육훈련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게 되었다.

전체 부지 면적은 약 73만 2,600㎡(약 22만 평), 부지 내 건물 연면적은 약 3만 8,561㎡(약 11,680평)에 이른다. 여기에는 원

자로 부지 약 4만 6,620㎡(약 1만 4천평)과 1호기 원자로 건물 2천 887㎡(약 875평), 2호기 원자로 건물 3천 832㎡(약 1,161평)이 포함되어 있다.

원자로 건물 안에 있는 원자로 1호기와 2호기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관리하고 대덕에 새 연구로

가 가동하게 되면 서울 연구용원자로를 제염, 해체 · 철거하되 소요 경비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부담한다는 것이 매매계약 조건이었다.

## 2. 연구로 폐로, 철거 추진 경위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85년 3월 서울의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를 매각한 후 대덕의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에 다목적 연구로를 비롯한 연구소 건물을 건설하여 단계적으로 이전을 진행, 1994년 경 완료하였다.

1993년 10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로개발단에서 작성한 「연구용 원자로 1, 2호기의 향후 대책」이라는 계획서에 따르면 당초 199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계약되었던 것을 1992년 2월에 재협약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임대 사용, 1996년 이후 임차료(연간 10억 원 예상) 지불 등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당시 연구로 부지의 재매입 방안(1993. 9 이후)이 검토되었는데 그 타당성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거론되었다.

- 폐로를 위한 여건이 아직 미비함(법령 및 기술 기준, 폐로 기술 능력,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미확보 등).

- 연구로 2호기는 그 수명을 고려할 때 아직 이용가치가 있음.

- 원자력공학과 등 학생 교육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대학 측 요구).

● 대덕의 다목적연구로(KM-RR) 정기 점검시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공급용 보완로로 사용가능.

● 원자로 운영비와 대비할 때 높은 임대료(10억 원/년)의 부담이 있음.

● KMRR(후에 '하나로'로 명명)의 보완로로서 연구로 2호기 운영 필요 등.

당시 원자로 1, 2호기 건물과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110억 원(공시지가)으로 추산되었다. 1985년 3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전 간에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한국원자력연구소는 Bechtel과 TRIGA Mark-II 원자로 해체 방안 공동 연구(1986. 4 ~ 1987. 4)를 수행한 바 있다.

그 후 원자력연구소가 연구로 해체 공사를 추진할 때까지의 경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96. 3 제 12차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에 연구로 1, 2호기 폐로 계획(안) 보고.

- 연구로 1호기는 기념관으로 전환하고 연구로 2호기는 완전 해체 철거한다.

● 1998. 5 제 16차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사업 계획 변경 보고.

- 사업 기간 : 1997. 1 ~ 2008. 12

- 철거로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추정량; 4m<sup>3</sup> × 200개)은 철제통에 넣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완성 시기(약 10년 이상

소요)까지 현 원자로 2호기 건물 내에 보관.

- 연구용 원자로 1호기는 모형을 제작, 대덕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전시.

● 1998. 9 연구로 폐로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대책을 원자력위원회(제 249차)에 상정, 의결.

- 원자로의 제염, 해체에 따라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장이 준공되는 2008년까지 현지에서 자체 저장 관리(구체적 폐로사업 계획은 과학기술부가 수립·추진).

● 1998. 12. 11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제출된 해체 계획서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안전성 심사 착수.

● 1999. 12. 14 연구로 해체 계획서 안전성 심사 결과를 과기부에 제출.

● 2000. 1. 21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환경분과위원회 위원 일행 연구로 현장(서울 공릉동) 방문

- 연구로 1, 2호기 해체 계획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기준 및 심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결론.

● 2000. 2. 23 제 12차 원자력안전 위원회, 연구로 1, 2호기(TRIGA Mark-II, III) 해체 계획 심의, 승인.

- 해체 계획서 검토 결과 안정성에 문제 없음을 확인. 다만, 차기 위원회에서 한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승인하기로 함.

- 당일 오후에 임용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정욱 장관에게 서울 공릉동 소재 연구로 1호기의 보존 필요성을 설명하고 1호기 현장을 방문토록 제안하여 서정욱 장관과 동행, 현장을 답사하였음.

- 서 장관은 연구용 원자로 1호기를 돌아본 후 보존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보존 방안 등을 원자력연구소장과 협의하겠다고 하였음.

- 그 후 서 장관은 한국원자력연구소장(장인순)으로부터 연구로 1호기 보존 관련 보고를 받았으나 연구소 측의 예산, 인원 등 어려운 여건 때문에 철거 후 모형을 제작 전시하기로 했다 하였음.

### 3. 연구로 1, 2호기 해체 작업

2000. 11. 23 과학기술부, 연구로 1, 2호기 해체 계획서 승인

- 연구로 2호기 및 관련 시설 해체.

- 연구로 1호기 및 관련 시설 활용 방안을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제출토록 요청.

● 2000. 12. 8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로 해체 인력 수급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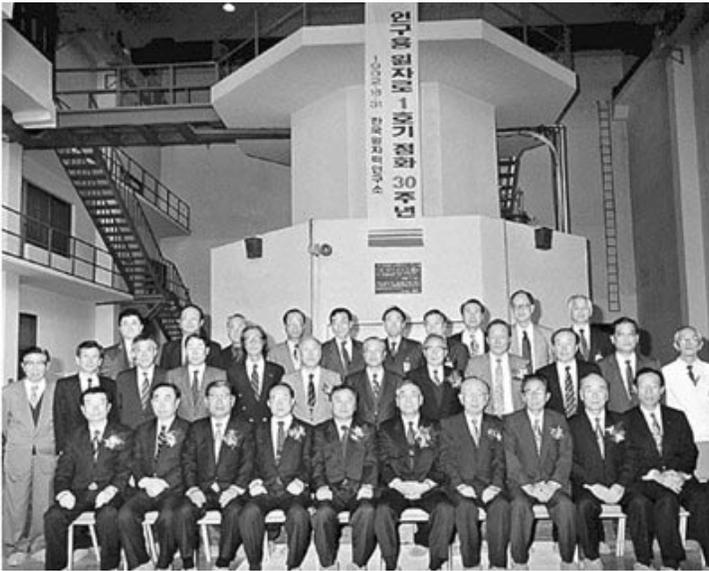
- 주 계약자 : 두산중공업(주)

- 엔지니어링 인력 : 한국전력기술(주)

- 방사선 안전관리 : 한일원자력엔지니어링(주)

- 작업 인력 : 일진정공

● 2001. 6. 1 연구로 2호기 해



연구용원자로 1호기 점화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원자력인들이 함께 모였다.

체 공사 착수.

- 2002. 12. 27 연구로 1, 2호기 해체 공사 기간 연장.

사업 기간 : 2003년 ~ 2008년 말

사업 내용

- 연구로 1, 2호기 및 부대 시설 해체
- 건물은 완전 제염 후 한국전력공사에 인도
- 2005. 2. 11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력공사(한전) 측에 '연구로 1호기 기념관'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 요청(핵제부 910-371)
- 2005. 3. 7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연구소에 기념관 사업의 향 없음을 통보(재무(관) 49403-1406).
  - 한전은 한전서울연수원의 입지 여건, 기념관 유용성의 한계, 먼학 분위기 저해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연구로 1호기의 기념관화 의향이 없음을 통보

- 2005. 3. 14 한국원자력연구소, 과학기술부에 한국전력공사는 연구로 1호기에 대한 보존 의사 없음을 보고.

- 철거 후 축소 모형을 제작하여 연구원 내에 전시하는 방안 제시. (핵제부 721-)

- 2005. 12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로 2호기(TRIGA Mark-III) 해체 작업 완료

- 연구용원자로 1호기(TRIGA Mark-II)는 연구용원자로보존추진위원회의 건의 등으로 철거공사가 미루어짐.

### 최초 연구용 원자로 보존·기념관화 활동

#### 1. 보존 및 기념관화 필요성 대두

- 1985. 3.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서울의 연구소 부지 및 건물을 연구로 1, 2호기 철거 조건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매각하였다.

● 1987년 2월경 박익수 회장(한국과학사학회) 등이 「원자력 문화재보존에 관한 건의문」을 작성하여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이병휘)와 공동명의로 과학기술처 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등에게 발송하였으나 본 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원자력연구소는 해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시켜 왔다.

#### 2. 우리나라 최초 연구용 원자로 보존을 위한 동기

● 조사 연구 경위 ; 2000년 2월 23일 과학기술부에서 개최된 제 12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연구로 1, 2호기에 대한 해체 계획을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사실상 철거 사업이 정부에서 승인된 것이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었던 임용규 위원은 과학기술부에 최초 연구용원자로 1호기의 보존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위해 조사연구 과제 수행을 제안하였다. 그 후 과학기술부 원자력국(국장 조청원)은 정책연구 과제로 「우리나라 최초 연구용 원자로 보존에 관한 조사 연구」를 채택하여 동 과제가 수행되었다(2001. 10. 과학기술부에 최종보고서 제출)

이 과제의 수행으로 연구용원자로의 보존 필요성, 기념관화 방안, 외국의 사례, 국내 원자력계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원자력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원자력계 원로들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 최초 「연구용원자로보존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구체적인 보존 방안이 추진되었다.

- 2002년 5월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이사장 임용규)가 창설되어 연구로보존추진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맡아 건의문을 작성하고 보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국회,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협의를 계속해 왔다.(추진 과정은 지면 제약상 생략)

**앞으로의 과제 / 기록을 남기며**

**1. 원자력 문화재로 등록 보존**

반세기 전에 서울 공릉동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 내에 세워진 연구용원자로는 인류 역사상 세 번째의 불인 ‘원자력’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단군 이래 최초로 원자력 불을 점화(핵 연쇄 반응)시킨 역사적 기념물로 이것이 모체가 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전환기를 만들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세계 상위권에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세대의 우리나라 과학 기술 분야에서 후세에 남길 역사적 유

물 중 우리나라 첫 연구용원자로야말로 첫째가는 과학 문화재이다.

현존하는 연구용원자로는 수백톤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내진 설계되어 암반에 견고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훼손이 없는 한 수 백년 ~ 수 천년 보존 가능하다.

철거일보 직전에 놓였던 원자로는 현 소유주인 한국전력공사가 보존하기로 정부(과학기술부)가 입증하는 보존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나 그 보존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문화재로 등록하여 법으로 보존시켜야 한다.

**2. 원자력기념전시관 및 교육 홍보**

2000년 한국전력공사에 매각된 연구용원자로 2기에 대한 철거 사업 계획이 한국원자력연구소 주관으로 추진되어 과학기술부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을 당시 연구용원자로 보존에 관한 조사 연구 과제(연구책임자 임용규)를 과학기술부에서 수탁하여 수행하였고 연구로의 보존과 기념전시관화에 관한 상세한 조사 내용을 보고서(2001년 10월 과학기술부에 제출)를 통하여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일본에 출장하여 도카이무라의 원자력연구단지 안에 있는 일본의 첫 연구용원자로(JRR-1) 기념전시관을 방문한 바 있다.

JRR-1은 열출력 50kW의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연구로로 1958

년 미국 AI(Atomic International)로부터 수입한 소형 원자로다. 원자로 구조상(밀폐식) 우리나라의 원자로(swimming pool type)에 비하여 볼품 없었다. 그러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초창기에 사용했던 실험 장치들을 비롯하여 주요 부품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그들은 일본 원자력의 역사성을 보존 전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인근에 있는 서너 곳의 원자력 전용 전시관과 연계하여 학생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었다.

일본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원자력 교육과 계몽을 위한 원자력 전시관과 원자력 관련 사업자가 운영하는 홍보 전시관 등이 40여 개가 있다.

대부분의 원자력 전시관들은 원자력발전소나 원자력 시설이 있는 인근에 위치하여 있고 지역 주민이나 원자력 시설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전시내용도 원자력의 원리, 안전성, 방사선의 성질, 환경과 원자력 등 원자력 시설에 부합되어 방사선에 대한 공포증 해소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계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일본 국민은 원폭의 피해로 어느 민족보다 원자력에 대한 공포심이 높은 국민이다. 현재 55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일본 전력 소비량의 약 25%를 담당하고 있다. 일

본은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방사선에 대한 공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과 계몽을 통한 수용성 제고에 투자한 결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며 전력 소요량의 40%를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교육과 계몽, 홍보를 위한 전시관이 몇 개가 있는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네 곳 밖에 없고 이들은 모두 발전소 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출입이 제한받고 있다. 그나마 전시 내용도 투자 미달로 빈약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원자력과 방사선 등을 교육 · 계몽할 수 있는 전용 전시관이 아직 없다. 더욱이 국민 반수 가까이 살고 있는 수도권과 경기 지역에 원자력 전용 전시관 한 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방사선 공포증을 해소하여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원자력 사업과 필수 관계 시설인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부지 확보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반대로 수천억 원의 국민세금 손실은 물론 안전도 사태와 같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큰 상처를 입

혔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모두 해소된 것이 아니고 반복될 개연성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통하여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예에서 드러나고 있다.

원자력 관련 사업자와 전력 회사 및 에너지를 관장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이 분야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소유로 되어있는 약 73만 2,600㎡(약 22만평)의 부지 중 연구용원자로의 부지 약 3만 3천㎡(약 1만평)를 확보하여 보존이 결정된 연구용원자로 건물을 원자력발전사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이와 연계하여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교육과 계몽 홍보를 겸한 원자력전시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우리나라 첫 연구용원자로가 보존될 부지는 자연 녹지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릉 등 명소와 인접하고 있고 교통이 편리하여 이 일대가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들의 접근이 수월하고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기록을 남기며...

2000년 11월 연구용원자로 2호기의 철거 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 된 후 2007년 11월 8일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용원자로를 보존하기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정부가 입증하는 문서에 서명을 받기까지 7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용원자로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자력계 원로님들을 비롯하여 관계기관의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하여주신 결과라고 믿는다.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매듭지어 주신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님과 이원걸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님께 감사를 표하고, 우리나라 「최초연구용원자로보존추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이어 공동위원장으로 적극 참여 · 활동하시다 2006년 11월말 타계하시고 박 익수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님과 이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안세희 전 연세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하여 박궁식 전 과학기술처 장관님, 이종훈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님과 실무를 맡아 수고해 주신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의 황경호 이사, 김재록 이사에게 감사의 글을 남깁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용원자로가 원자력 문화재로 영원히 보존되어 기념관화 되고 원자력 교육 계몽의 장소로 확장 · 발전되어 온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